

말씀을 정리하여 백성을 해방시킨 에스라

-복음으로 여는 에스라-

에스라 7:10-13, 고린도전서 1:18

정윤돈 목사님

* **스7:10-13**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라 여호와와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준공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절대불가능한 영육간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 오직 나라와 민족과 나의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미션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응답받을 레마의 말씀과 도전하고 응답받아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생들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 정리하면 다 올라 받는다. 과거에 어려운 학생을 도울 때, 그 학생은 공부도 안하고 포기하여 남는 게 시간이었다. 시간 나는 대로 데려다가 말씀만 가르쳤다. 처음에는 멍하고 졸고 얼어져 있었다. 나중에 고개를 들고 적기 시작했다. 그 적은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리더자가 되었다. 위정희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을 때 보면 노트에 뽁뽁이 적고 줄을 긋고 표시하신다. 우리는 귀찮아서 대중 적다. 왜 유별나게 저렇게 하시는가? 나중에 포럼할 때 들어보니 남편은 오랫동안 아프고 교사하느라 힘들어서 온 몸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계속 말씀을 붙잡으니 아들, 사위, 제자들, 같이 간 필리핀 팀들도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으니까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것을 잘 정리하길 바란다. 예배가 무엇인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인간은 걸으려는 육, 그 안에는 마음과 생각, 그 안에는 혼,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영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과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다. 혼은 철학, 사상, 이념, 좌파, 우파, 신념, 이런 것이다. 이게 너무 강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신의 사상과 달란트가 잡아먹는다. 나중에는 흑암, 혼돈, 공허,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과 감정이 혼과 영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약하면 춥고 덥고 아프고, 돈이 없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미래의 의식주가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게 철학과 인생관이 되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제자를 찾을 수 없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다. 겨우 내가 구원받는 정도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힘이 너무 약한 것이다. 예배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이다. 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가?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어야 하나면, 아무 관계없이 성령과 말씀과 복음이 충만한데 나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아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이다. 내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

고 부도가 나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 문제가 있고 전쟁이 나도 아무 관계없을 정도로 성령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담과 결론을 내리길 축원드린다. 그래야 세상과 마귀에 끌려 다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간이 예배시간이다. 우리의 영이 그냥 충만해지는 것인가? 영은 믿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몸으로 산체사로 예배시간에 오면, 입으로 찬양하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오감을 사용하여 온 몸으로 듣는 것이다.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찬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는가? 마음, 생각, 육신, 영혼까지 다 바꾸길 바란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안되고 교회 안다니고 잘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일반계시는 무엇인가?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살고 땅을 열심히 갈면 비를 준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이게 일반계시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영혼이 잘되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란다. 또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복음과 믿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정리를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다. 아브라함도 은금이 풍부했다. 법, 정결법, 모든 세상의 제도들이 성경에 나왔다. 금융도 다 유대인이 만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웠다. 요리사들도 레시피를 정리한다. 우리 램턴트도 사우디아라비아 호텔도 갔다. 일본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방장이 불러서 책을 주면서 배우고 자기 제자가 되라고 했다고 한다. 정리가 되어있는 것이다. 요새는 AI가 많이 해주는데, 그러더라도 자기 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왜 믿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남 탓하고 실망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숨고 피해 다니고 좌절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 인생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다. 인생이 무엇인가? 회로예탁과 생사회복이다. 기쁘고 노하고 행복하고 가난하고 부자고 죽고 생사회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정치를 하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굉장한 어려움, 포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자기 자신과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인물이 있었다. 바로 에스라이다. 에스라가 구약성경 전체를 정리했다. 학사 겸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진도자였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다. 전 민족을 살린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 가문은 복음으로 살릴 정도로 믿음이 정리되어 있길 축원드린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믿음이 안 생기면 누워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할머니께서 신줏단지 모시고 절을 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아버지에게까지 흘러갔다. 자기의 영적 문제, 성질 때문에 다 없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뚱고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안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면 갈수록 인생의 재앙으로 온다. 20대에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오래된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오고 저 위에서 온 것이다. 신학생들 강의할 때 집안의 가계도를 그러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고모, 어떤 사람은 삼촌과 똑같다. 마약중독, 알콜중독, 사고, 재앙, 정신문제가 똑같다. 어떤 자녀는 좋은 것만 받은 것도 있다. 복이다. 가정을 살려야 한다. 명절에 가서 얼굴 보면 누구와 닮았다고 말을 듣는다. 외모만 닮으면 다행이다. 더 문제는 영적인 저주, 영적으로 잘못된 DNA, 나만 아는 깊은 것, 뚱고집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랄한 고집과 교만과 영적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백성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극히 양호한 편이다.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쓰실 줄 믿는다. 우리나라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브라질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강도질 당한 이야기만 듣고 왔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여러분이 복음만 조금 깨달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1. 포로시대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하고 깨닫고 응답 받으면 말하게 된 것이다. 어느 정도였냐면, 왕들도 에스라에게 조언을 받았다. 페르시아 왕이 들어보니까 인문, 사회, 과학, 성경의 지식이 탁월했다. 왕들이 에스라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1) 에스라 1장 10절 5명의 왕들의 역사를 정리했다. 환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페르시아 왕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고 바라본다면 적국의 왕들을 통해서라도 나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요새 중국, 일본, 동맹국이라고 했던 미국

까지도 우리를 괴롭힌다. 자원도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세워왔는데, 강대국들이 뜯어먹는다. 뉴스를 보며 그런 걱정을 하는데 에스라서를 보면서 걱정이 사라졌다. '제가 부족하다면 참사랴교회 성도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재앙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① 에스라는 첫 번째 왕 고레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시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하시니' 고레스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참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 때문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정리된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 감화를 받고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②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모든 금점사와 은점사와 돈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고 보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종교다원주의였다. 계속해서 성전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렸다. 잇수르에 저항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걸 고발하는 편지를 하나님께 보냈다.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③ 세 번째 다리오 왕이었다. 성전을 짓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돌려하여 왜 성전건축을 멈추느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반대했다고 해도 멈추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사람들이 다시 성전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시 성전건축을 시작했다. ④ 에스더를 아베로 맞이한 아하수어로 왕이다. ⑤ 다음은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앞에 나온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다. 에스라를 도와 2차 포로귀환을 시킨 왕이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고 도와준 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3차 귀환을 할 때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아 3차 귀환을 하도록 허락했다. 페르시아 왕인데 왜 귀환을 도와줬을까? 이 왕은 아하수어로 왕의 아들이었다. 그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다. 친모는 아니었지만 에스더를 통해 복음을 듣고 역사를 보며 자랐던 것이다. 그래서 두 번이나 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어렵고 힘든 포로기간이었지만 에스라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집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집중했다. 지금 어떤 게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핍박을 받고 강대국이 괴롭히고 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 가족, 부모님도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는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되 이 명절날에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 옳은 말 하지 말라. 흑암 껴고 기도해주라.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인생을 잘 정리하여 현장을 살리기 바란다.

(2) 성전회복의 역사를 정리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종 절기와 제사를 지냈다. 사실 모든 성막제도와 피제사는 어린 양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란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정리했는데 답을 모르고 정리가 안되고 있었다. 가끔 시험치는 랍넛들에게 컨닝페이퍼를 만들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정리하라. 물론 시험 때는 보면 안된다. 벼락치기 보다 중요한 것은 시지기, 분치기, 조치기를 해야 한다. 공부만 하고 정리를 안하면 흑암, 혼돈, 공허인 것이다.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참복음을 상실하자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 소수만 정리해도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란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사단이 먼저 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성전재건의 과정을 정리했다. 복음을 계속 정리하면 응답받을 것이 계속 나온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는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성전재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그들이 방해한 이유는 성전재건에 참여시켜주지 않아서이다. ① 에스라 4장 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재건, 돈 버는 일에 자신들을 끼워주려고 했다. 돈 쥐서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었다. 참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다. 종교인은 자기 이익, 돈, 자기 먹는 것, 입는 것만 생각한다. 나는 몇 대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 안에서 빠지면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변한다. 겨우 구원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상, 철학, 고집이 혼 속에 있다. 이게 완전 박살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되시길 바란다. ②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 사람들이 공사에 끼워주지 않으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성전공사를 그치게 방해했다. 교회와 성전부흥을 방해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보다 자기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게 문제와 피해가 오면 말씀보다 내 혼, 고집, 이익, 철학, 사상, 좌파, 우파가 먼저 나온다.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축원드린다. 그래서 성령충만, 기도충만, 말씀충만 해야 한다. 혼과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빨리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한다.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은 얼마 못간다. 중요한 결정적일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 때려 치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내시길 축원드린다. ③ 에스라 6장 15절에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건축을 끝내게 된다. 그러나 성전을 보호할 성벽과 성문을 수리해야 했다. 이를 수리한 이가 느헤미야였다. 외형적인 것은 회복되었지만 예배와 말씀과 복음적인 삶과 같은 내적인 부분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기도, 예배에 대해 갱신을 촉구했다.

(3) 구약성경 전체와 복음을 정리한 인물이었다. ① 에스라 7장 10절에 말씀을 그냥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다. 그 결실을 한 것이다. 수행하는 방법을 책으로 읽으면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치고 전도해 보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운동과 공부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도전해야 한다. ② 그래서 에스라는 죽어있는 지식과 말씀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사람도 나와 함께하고, 7장 15절 은금을 가져가고, 7장 16절 바벨론 온 도에서 모든 은금과 예물을 다 가져가고, 7장 17절 제사도 드리고, 7장 18절 성전을 재건하려면 많은 돈이 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제사 드릴 것도 다 가져갔다. 나머지 은금은 나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뜻을 따라 쓸지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그 형제가 사역할 때 쓸 모든 은금을 다 주었다. 이러한 말씀성취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2. 우리들은 그럼 무엇이 정리되어야 할까?

에스라는 구약성경말씀 전체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복음과 말씀과 삶을 정리했다.

(1)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가끔 초등학교 애들에게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면 '하나님'이라고 한다.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셨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다. AD.323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정했다. 그 후로 몇 십 년이 지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확정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이단이 나왔다.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나왔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는 말을 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틀린 말이다. 최종적인 결정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와 같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최종적으로 삼위일체의 결정문을 내렸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개혁주의신앙,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 장로회의 신앙이다. 이 믿음과 성경적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축하드린다.

(2) 성경적인 신학을 확실히 정리했다. 루터와 칼빈과 개혁주의신학, 웨스턴민스터 장로회 신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3) 복음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사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인간의 노력의 한계,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이다.

(4) 나의 전문성, 현장,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업을 잘 정리해야 하고, 나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잘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종이돈을 안 쓴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시대이다. 나라마다 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었다. 나라마다 내 주체의 지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돈의 가치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돈 정리를 잘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돈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후대들에게 앞으로 주식, 금융, 경제, 투자를 가르쳐야 한다.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여기에 준비되지 않으면 다 노예로 산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서 정리하고 대비하길 바란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5)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림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 생각과 그림과 체계도 없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 나중에 다 문 닫는다. 진짜 팀을 짜서 말씀을 정리해서 다민족과 237현장에 끝까지 가지고 갈 절대제자를 찾아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법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것이 먼저 정리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우리를 포로와 노예 삼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적국의 왕들까지도 감동, 감화 시킬 수 있을 만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